

2024 설날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11) -아멘-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36장 /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같 이

1.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따라서 죽도록 충성 하겠네
2.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하겠네
3.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하겠네 아멘

대 표 기 도 인 도 자
(가족중에서)

성 경 봉 독 수 1:5~9 다 같 이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

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
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
느니라 하시니라(아멘)

설 교 강하고 담대하라 인 도 자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두려움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
다. 그렇게 두려움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히 하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너는 마음
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그만큼 확
실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직접 그와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직접 목격한 경험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
기를 불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심리적인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것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삶과 역사속에서 함께해 오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
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에만 두려
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
니다.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승리하는 길이 군사력이나 지도자
의 지도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4-15).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 말함으로써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이탈하지 않은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선택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여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환경이나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번 설날뿐만 아니라, 올 한해 전체를 우리와 함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죄와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우리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1. 2024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올 한해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